

AEO 제도 도입이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AEO 제도 개요 3
2. AEO 제도의 중요성 3
3. AEO 제도 도입 현황 4
4. AEO 인증 취득 방법 5
5. AEO 제도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7

작성 : 책임연구원 김윤지 (3779-6677)
yzkim@koreaexim.go.kr

확인 : 실장 안상술 (3779-6670)
ssahn@koreaexim.go.kr

< 요약 >

1. AEO 제도: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

- 관세당국이 기업의 수출입 신고 성실성,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부여하는 기업인증제도. 인증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2. AEO 제도의 중요성

□ 새로운 교역장벽으로 작용 가능

- 미국, EU 등은 자국법에 의한 AEO 인증기업 여부에 따라 화물검사 등 통관절차를 차등적용하고 세금 혜택 부여. AEO 인증 기업에게는 수입 검사를 완화해 가는 반면, 비인증 기업의 검사 강화 추세.

□ 거래 업체간 무역 거래 조건으로 등장 → 미인증시 수출 끊길 위험

- 미국 세관은 모든 수입업체에게 거래업체의 AEO 인증 여부를 명기하도록 하고 인증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거래선 확보와 유지를 위해 AEO 인증이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
- 최근 3M(화학), Boeing(항공), Bayer(제약), Macy's(백화점) 등 미국기업들이 국내 거래업체에 대해 한국세관으로부터 AEO 인증을 요구

3. AEO 제도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 해외 업체들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만으로 거래업체를 유지하려 할 경우 AEO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출이 끊길 가능성도 높음
- 현재 관세청이 미국·캐나다·싱가포르와는 '10년 6월 중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협정 체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나라 AEO 인증을 외국에서 인정하지 않음.
- 이런 이유로 미 관세청은 자국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안전요건 충족여부를 직접 심사하고 있음.
- 현재 AEO 인증 신청을 준비한다 해도 준비기간 1~4개월, 심사 약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중소 수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시급.

1. AEO 제도 개요

□ 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종합인증 우수업체 제도

- 관세당국이 기업의 수출입 신고 성실성, 시설안전 관리기준 등을 심사하여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부여하는 기업인증제도. 인증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물품검사 면제 등 통관절차 간소화 혜택 부여.
- ISO14000(국제환경규격), ISO9001(품질), ISO28001(물류보안) 등과 같은 기업 국제규격 가운데 하나로 AEO는 물류보안 인증제도와 유사함.

□ 추진배경

- 9.11 사태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세계관세기구(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표준(SAFE Framework)으로 도입
- 2001년 9.11 사태 이후 국제물류에서 보안강화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한 것이 배경
- 2005년 6월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내년 6월까지 세계관세기구 회원국(154개국)은 모두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함.
- 한국도 지난 해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도입

2. AEO 제도의 중요성

□ 새로운 교역장벽으로 작용 가능

- AEO 인증 여부에 따라 무역 혜택과 불이익이 극명
- 미국, EU 등은 자국법에 의한 AEO 인증기업 여부에 따라 화물검사 등 통관절차를 차등적용하고 세금 혜택 부여. AEO 인증 기업에게는 수입 검사를 완화해 가는 반면, 비인증 기업의 검사 강화 추세.
- 미국 세관에서 AEO 인증 기업에 대한 검사율은 AEO 미인증 기업의 1/10
※ 현재 미국 수입 화물에 대한 검사율은 22.3%로 C-TPAT(미국의 AEO 제도 명칭) 도입 이전의 5%보다 크게 높아짐. AEO 비인증 기업에 대한 검사율 향상 때문
- AEO 수출업체가 교역 상대국에서 화물검사 생략 혜택을 받을 시 1컨테이너당 300~500달러의 절감 가능 (검사 소요 시간 3~4일 절감)

□ 거래 업체간 무역 거래 조건으로 등장 → 미인증시 수출 끊길 위험

- 미국 세관은 모든 수입업체에게 거래업체의 AEO 인증 여부를 명기하도록 하고 인증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 → 거래선 확보와 유지를 위해 AEO 인증이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
 - 최근 3M(화학), Bowing(항공), Bayer(제약), Macy's(백화점) 등 미국기업들이 국내 거래업체에 대해 한국세관으로부터 AEO 기업으로 인증받을 것을 요구
 - Bowing(미국) →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실사
 - 3M(북미&유럽) → 코오롱 실사
 - 현재까지 AEO와 관련해 미국 세관에서 약 98회 방문조사를 해 400개의 국내 업체 실사. 특히 다음 달부터 미국과 EU의 세관 담당자들이 한국 영세기업을 본격적으로 방문 조사할 예정.
- 특히 지금까지는 대부분 미국 세관이 조사한 국내 기업들이 대부분 대기업이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중소기업들에게까지 AEO 규정 준수를 확인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영세기업들의 부담 가중
 - 미국 세관은 방문조사시 조사기업들의 무역 법규 준수, 재무 안정성, 직원 채용 기준 등은 물론 출입자 통제, 컨테이너 적재 방식과 잠금장치 국제 규격 준수 등 세부적인 상황까지 체크하고 이들 내용의 서류화까지 요구
 - 특히 영세 중소기업들의 경우 '문서화' 습관이 적어 애로를 겪고 있음.

□ AEO 시행·준비국의 무역비중

- AEO제도를 도입하였거나 준비중인 국가가 세계 무역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동 국가에 대한 우리 수출비중은 이미 75%를 상회
 - 우리나라 10대 수출국 중 7개국 AEO 시행(수출비중 87%)

3. AEO 제도 도입 현황

□ 세관당국간 상호인정협정 체결

- AEO는 각 국가별 세관이 AEO 상호인정협정(MRA :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체결하면 한 국가에서 받은 AEO인증으로 상대국 세관의 통관절차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절차: 공인기준 상호비교 → 합동심사 → 세관절차 합의 → 관세청장 서명
- 현재 AEO 제도 도입 및 시행국가: 총 45개국

- 도입 대상국: 세계관세기구 SAFE Framework 이행의향서를 제출한 154개국
- 현재 한국 관세청도 관세법('08년 1월) 및 동법 시행령('09년 2월) 개정을 거쳐 '09년 4월부터 관세청고시로 AEO제도를 도입한 뒤 도입국들과 상호인정협정 체결을 추진중.
-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와 상호인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기준 비교 완료 후 합동심사 단계 진행 중
-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와도 실무작업반을 구성하여 상호인정절차 개시

AEO 상호인정협정 추진현황

국 가	도입	공인업체수	상호인정협정 추진
미 국	'02	9,386개	체결(일본, 캐나다, 뉴질랜드, 요르단) 진행(한국, EU)
일 본	'07	370개	체결(미국, 뉴질랜드) 진행(EU, 한국)
EU	'08	1,106개	체결(노르웨이, 스위스) 진행(한국, 미국, 일본)
중 국	'08	1,217개	진행(EU, 한국, 일본)
캐나다	'08	1,500개	체결(미국) 진행(한국)

□ 현재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 및 신청업체 현황

- 현재 우리나라 AEO 공인업체는 13개 업체 뿐
 - 대기업·중견기업: 삼성전자, 코오롱 유화부문, 삼성전자로지텍, 고려해운, 하이닉스 반도체, 하나로 T&S
 - 중소기업: 다산네트웍스, 조양국제종합물류, 삼원산업사
 - 외투기업: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 쉥커코리아, 부산신항만
- 현재 삼성, LG, 현대, 두산, 코오롱 등 주요 대기업은 그룹 차원의 TF 팀을 구성하여 AEO 공인 추진 중
 - '10년까지 AEO 공인 신청 의사를 표시한 업체는 모두 242업체
- 그러나 중소 수출기업과 포장, 운송, 보관 등을 담당하는 중소 연관 기업들은 AEO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준비 미비

4. AEO 인증 취득 방법

□ 인증 부여 기관: 관세청

□ 인증 대상 : 수출업체, 수입업체, 선사, 항공사, 관세사, 보세창고업자,

보세운송업자, 운송주선업자, 하역업자 등 9개 범주의 사업자

□ 공인기준 및 등급

- 공인기준: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등 4개 항목
- 공인등급
 - 기본요건: 재무건전성 및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평가 점수 80점 이상 및 법규준수도 85점 이상
 - 등급 구분: 법규준수도의 차이를 고려하여 등급화

등 급	구 분 기 준
A	◦ 법규준수도 85점 이상
AA	◦ 법규준수도 90점 이상
AAA	◦ AA등급 업체로서 종합심사 결과 법규준수도 95점 이상 ◦ (법규준수 개선계획에 따른) 우수사례 보유

□ 공인절차

-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실시 후 공인기준 충족업체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규준수도에 따라 A, AA등급 인증서 교부
 - AAA등급은 종합심사 결과를 기초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인
- 유효기간 : 3년

□ 종합인증우수업체(AEO)에 대한 특례

- 특례사항에 따라 AEO 등급별로 차등화 또는 공통 적용
 - 신용담보액 상향 조정: A등급 30/365, AA등급 40/365, AAA등급 365/365 (非AEO 20/365)
 - 월별 납부: AEO 공인을 받으면 모두 동일하게 허용

□ AEO 공인 신청 방법: 관세청 AEO 통합관리시스템

□ AEO 관련정보

-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통관정보의 문 > AEO코너
- 문의 및 상담: 관세청 심사정책과
이철훈(042-481-7867), 정기섭(-7784), 유명재(-7866)

5. AEO 제도가 중소기업 수출에 미치는 영향

□ AEO 제도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

- AEO 인증제도 조건이 까다롭고, 심사기간도 길어(서류접수 후 서류심사기간 2개월, 현장심사 2개월) 중소·영세업체들이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특히 AEO 인증 조건 가운데 안전관리 부문에서 국내 중소·영세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안전관리 세부규정 가운데에는 퇴직자 출입증 반납까지 문서화해 보존하는 내용까지 포함
- 해외 업체들이 AEO 인증을 받은 업체만으로 거래업체를 유지하려 할 경우 AEO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출이 끊길 가능성도 높음

□ AEO 제도 상호인증협정 체결까지 공백 기간 존재

- 현재 관세청이 미국·캐나다·싱가포르와는 '10년 6월 중 상호인증협정 체결을 목표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협정 체결이 될 때까지는 우리나라 AEO 인증을 외국에서 인정하지 않음.
- 이런 이유로 미 관세청은 자국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안전요건 충족여부를 직접 심사하고 있음.
- 미국 관세청은 '03년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를 방문하여 약 400업체를 심사했으며, 12월중 미국 나이키社 거래 국내 수출기업의 하청업체 심사예정
- 중소·영세업체 입장에서는 미국 관세청의 직접 심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음. 특히 미국 관세청의 경우 테러 대비가 세관 목표라 안전관리 기준이 매우 까다로움.

□ 중소기업, 공인 준비시 애로사항 존재

- 현재 AEO 인증 신청을 준비한다 해도 준비기간 1~4개월, 심사 약 4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 중소 수출 기업들의 적극적인 준비와 대응이 시급.
- 특히 대기업들은 내부자원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소기업들은 제도 자체에 대해서도 이해가 부족하고 준비도 부족해 보완책 마련 필요.

- 기본적으로 AEO 제도도 기업에 대한 국제 규격제도 이므로 이전에 ISO14000(국제환경규격), ISO9001(품질), ISO28001(물류보안) 등과 같은 국제규격을 이미 받은 업체라면 비슷한 프로세스를 거쳐 상대적으로 쉽게 준비 가능
- 반면, 이전에 기업 국제규격제도 인증을 받지 못했던 기업들이라면 업무절차에 대한 문서화, 사고처리에 대한 문서와 기록 등이 잘 갖춰져 있지 않아 준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전문가들은 1~4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
- 관세청에서는 제도 도입 초기라 업체들이 많은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담당과(심사정책과)에서 기업별 카운슬링을 제공할 계획.
- 현재 이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업체도 없기 때문에 관세청 담당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음.
- 관세청은 공인 준비시 중점 사항으로 제출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은 물론, 각종 업무를 문서화하고, 기준 조항을 먼저 이해한 뒤 업체 특성에 맞게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
- 특히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허위 사실을 제출할 경우 현장검사에서 적발되면 해당사항이 0점으로 처리되므로, 회사 실정에 맞게 준비할 것을 강조함.

美수출 새로운 장벽 AEO

<통관 간소화제도>

영세 중소기업에도 적용...정부 내달 지원책 발표

중소·영세 수출기업들에 'AEO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 인증제'가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AEO 인증제는 2005년 세계관세기구(WCO)에서 합의가 이뤄져 내년 6월까지 전체 154개 회원국의 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한국은 지난해 관세법 개정 등을 통해 이미 도입한 상태다.

그러나 AEO 인증을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워 중소·영세업체들이 기준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 관세청은 AEO 인증 조건 중 특히 안전관리 부문에서 국내 중소·영세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29일 밝

혔다. 안전관리 규정에는 퇴직자 출입증 반납까지도 문서화해 보존하는 내용까지 포함됐을 정도다.

이돈현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상대적으로 사내 보안 관리 등이 취약한 중소·영세기업은 향후 수출에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염려했다.

현재 AEO 인증제를 도입한 국가는 45개로 이들이 전 세계 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0%에 달한다. 특히 다음달부터 미국과 유럽연합(EU) 세관 담당자들이 한국 영세기업을 본격적으로 방문 조사할 예정이어서 AEO 인증이 비관세 장벽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중소·영세기업 AEO 인증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허용석 관세청장은 지난 25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A5면에 계속

정육기자

용어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세관에서 수출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기준을 충족하면 통관 절차 등을 간소화시켜주는 제도다. 9·11 테러 이후 미국 세관에서 안전을 강조하면서 통관이 지연되자 WCO에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했다. 미국은 C-TPAT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 A1면서 계속

美수출 새로운 장벽 AEO

인증 못받으면 수출 끊길수도

경기도 의정부에서 양말공장을 운영하는 A사장은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다.

다음달 4일 미국 세관에서 공장실을 나오겠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A사장 양말공장 직원은 자신과 부인 2명이다. 공장에서 생산한 양말을 다국적 스포츠업체인 나이키에 수출업체를 통해 납품하는 전형적인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하도급 업체다.

미국 세관은 모든 수입업체에 거래업체 AEO 인증 여부를 명기토록 하고 있다. 거래업체가 AEO가 아니라면 인증을 받도록 '권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세관 측 주장이다.

현재까지 미국 세관에서 방문 조사한 국내 기업만 98개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대기업이라 큰 문제가 없었지만 최근에는 미국 세관에서 중소기업들까지 AEO 규정 준수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첫 방문 예정인 중소기업이 A사장

공장과 여기서 만든 제품을 포장하는 B사다. B사 역시 직원 9명에 불과한 영세 업체다.

미국 세관 목표가 테러 대비라 수출업체의 안전을 중시해 시간장치, 창문 설치 등은 끝냈지만 A사장은 과연 미국 세관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미국 세관은 무역 법규 준수, 재무 안정성, 직원 채용 기준 등은 물론 출입자 통제, 컨테이너 적재 방식과 잠금장치 국제규격 준수 등 세부적 사항까지 따진다. 또 이들 내용을 서류화해 남겨 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영세기업으로서는 모두 새로 준비를 해야 할 상황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AEO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출이 끊길 가능성이 있다"며 "영세업체들로서는 당장 AEO 인증을 받기가 쉽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최근에는 미국 외에 다른 국가와 지역에서도 AEO 인증 여부 등 관련

AEO 제도란?

도입 국가

- 45개국(전 세계 교역량 80% 차지)
- 내년 6월까지 세계관세기구 회원국 의무도입

인증 기관

- 관세청

인증 단계

- AAA, AA, A 3단계 (3년간 유효)

공인 기준

- 법규준수도,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인증 대상

- 제조사, 수출·수입업체, 관세사, 운송인, 창고업자 등

혜택

- 통관절차 간소화 및 관련 세금 혜택

인증기업

- 한국 13개사. (미국은 9128개사, 3월 말 기준)

*자료=관세청

문의가 늘고 있다. 인증 기업을 양국 세관에서 상호 인정하는 MRA 체결도 늘고 있어 AEO 인증 위력은 날이 갈수록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역시 현재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양국 간 MRA 체결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AEO 인증을 받은 기업은 13개에 불과한 상황이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AEO 인증을 받은 미국 기업은 9128개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국내 중소·영세 기업은 AEO 인증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이라 관련 업체와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육기자